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19. 1. 22.(화) 10:00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상하수도본부	보도자료 PRESS RELEASE	상수도부장	현공언	☎ 750-7800
		하수도부장	이학승	☎ 750-794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상하수도본부, 현안해결에 집중 투자

- 상수도 유수율 7~8% 향상... 안정적 하수처리 기반 마련 -

-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(본부장 강창석)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450억 원을 집중 투자해, 상수도 유수율을 7~8%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.
- 도 전역의 상수관망을 블록화해 관리해 나가고, 노후 상수관 725km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.
-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과의 절충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.
- 상하수도본부는 서부지역 상수도 공급계통을 변경해 안정적 상수도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,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한다.
- 한림정수장 수질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어온 만큼, 한림정수장(2만톤)에서 급속여과공법으로 공급되는 1만톤에 대해 광역수원 공급계통으로 변경하는 관로연계 공사를 마무리 했다.
- 또, 올해부터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1만톤에 대한 서광지역 대체지하수 개발(10공)을 추진해 한림정수장을

예비시설로 전환해 나간다.

○ 특히, 수질검사 항목을 130개에서 140개로 확대(국가기준 60개 항목)하고, 총 4억 원을 들여 추가 검사항목장비 4종을 도입한다.

□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역류 사고의 재발방지와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한다.

○ 지난해 11월 수립한 ‘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’ 계획의 이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,

○ 그동안 종합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(도두)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전담조직(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단)이 신설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.

- 총 사업비 3,887억 원이 투입되는 현대화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, 올해는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.

- 건설사업관리단(CM: Construction Management)을 선정·운영해 공사에 대한 기획, 시공관리, 감리, 평가,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한다.

○ 성산하수처리장(증설 완료)을 제외한 6개 하수처리장 증설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조기에 마무리한다.

○ 하수처리장 노후로 인한 수질관리 개선에 194억 원의 사업비

를 투자해 시설개량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.

○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온 오·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올해 총 480억 원을 투입해 57km의 관로를 개선해 지하수 오염 등 청정환경 보전에 힘쓴다.

○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중수도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, 방류관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등도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“중점사업 외에도 안전교육 강화, 안전시설 확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에도 도전할 것”이라며 “올 한해를 변화와 혁신의 해로 삼고,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”이라고 밝혔다.